

# 어르신과 이주민 매주 공양하며 인연 맺어

## 100회 맞은 (사)꿈을이루는 사람들 '어르신 수요공양방'

(사)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이 운영하는 '어르신 수요공양방(이하 수요공양방)'이 100회를 맞았다. 2012년 문을 연 수요공양방은 매주 수요일 구미 인근의 어르신들을 초대해 식사 대접과 소규모 공연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사)꿈을이루는사람들은 5월 6일 구미시 지산동 꿈을이루는사람들 잔디마당에서 '어르신 수요공양방 100회차 큰잔치'를 열었다. 3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어르신 점심 공양, 컵등 선물, 용돈 보시, 민요·춤·연주·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그동안 봉사자와 후원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돼 훈훈함을 더했다.

수요공양방이 특별한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매주 마련된다는 점이다. (사)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은 "외국인 노동자를 10년 정도 도왔는데 지역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르신들을 도와주면 어떻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르신들은 손주벌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효도를 받을 수 있으니 무



(사)꿈을이루는사람들은 5월 6일 구미시 지산동 꿈을이루는사람들 잔디마당에서 '어르신 수요공양방 100회차 큰잔치'를 열었다.

### 2012년부터 매주 공양 대접 이주민 배식 봉사에 참여 불교요양원 설립도 추진중

었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무리인 탓에 이들이 할 수 있는 봉사는 배식봉사와 뒷정리 정도다. 그래도 어르신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고 있다고. 수요공양방을 찾는 어르신들은 초창기

30~40명에서 120여 명까지 늘었다. 야외에서 배식하는 까닭에 추운 겨울 3개월 가량은 공양방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단점도 있지만 그동안 공양방을 후원해 주는 봉사자와 단체들의 훈훈한 손길도 100회를 맞는데 큰 힘이 되었다.

진오 스님은 "갓바위 선본사에서 쌀을 보내주고 있고 지역 단체들이 반찬값을 보시해주고 있다. 또한 4팀의 봉사자 30여 명이 매주 나누어 조리 봉사를 해주고 있다. 또 지역가수도 와서 음성공양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100회 잔치는 어르신들 공양 대접은 물론 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야외 화장



외국인 노동자들이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실을 지원해준 기부 사이클리스트 이형모 씨와 100회 동안 봉사에 꾸준히 참여한 김종옥 보살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한 식재료비를 일정금액 보시해준 마트와 떡 보시를 해준 떡방 등 지역 후원 업체에도 감사장을 전달했다.

앞으로 (사)꿈을이루는사람들은 불교 노인요양원 건립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스님은 "수요공양방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불교 요양시설로 오고 싶어하는 분이 많다는 걸 알았다. 앞으로 불교 요양 시설 건립해 어르신들이 부처님 품안에서 여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계획을 전했다. (054)454-7800

정혜속 기자 bwjns@hyunbul.com

##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 알아가요"

수요공양방 조리봉사 3년, 감사패 받은 김종옥 보살

김종옥 보살(53)은 수요공양방을 이끈 숨은 공신으로 100회 잔치를 맞아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김 보살은 2012년 첫 행사부터 지금까지 지 월 1회 꾸준히 조리 봉사에 참여하며 보시행을 실천해오고 있다.

"오랫 동안 인연을 이어오던 진오 스님의 부탁을 받고 지인 5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조리시설은 없고 도마 하나와 판넬 하나만 달랑 있었어요. 너무 놀랐죠. 이런 데서 어떻게 음식을 만드냐며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후 계속해서 시설을 보강해 가며 공양 대접을 이어가고 있어요. 초창기를 생각하면 지금 100회를 맞은 건 기적과도 같아



100회를 맞아 감사패를 받은 김종옥 보살

### 첫회부터 꾸준히 공양봉사 참여 10년동안 컵등 2천개 보시도

요. 너무 감동적이라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선을 다해 이웃을 돕는 스님을 옆에서 도와드린 것뿐이라고 말하는 김 씨는 지난 10년간 봉축 맞이 컵등 2000개를 제작해 환우들에게 보시해 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진오 스님의 부탁을 받고 지인들과 함께 컵등들을 만들었어요. 장소가 마땅치 않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컵등 2000개를 매년 만들고 있죠. 이번 수요공

양방 행사에서도 300개의 컵등들을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보시했어요." 불교는 인연이 중요하다하고 여기는 김 보살은 자신이 만난 인연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한다.

"진오 스님을 만나 이웃을 돕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인 제가 많은 돈을 보시할 수 없으니 봉사를 통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봉사로서 제 능력껏 봉사하며 이웃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혜속 기자

# 어린이날 어르신 돌보며 가족 의미 되새겨

## 송파노인요양센터, 3세대 모여 '할머니네 가는 날' 진행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받고 불광사가 지원하는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원장 손지영)는 5월 5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송파구 주민 10가족을 초대 5월 5일은 할머니네 가는 날'을 진행했다.

'할머니네 가는 날'은 요양센터에서 지내는 어르신들과 일일 가족을 맺어 3세대가 함께 사진도 찍고, 게임과 식사도 하며 하루를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송파노인요양센터는 "3세대가 어우러져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고자 마련된 행사다. 어린이들은 어르신과 함께 지내며 노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르신들은 사회의 어른으로서 따뜻한 기질을 가족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할머니네 가는 날'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이 어르신들과 게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날 행사는 초등학생, 성인, 어르신이 함께하는 미니올림픽, 피크닉 등이 진행돼 세대교감을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유세현 어린이(9)는 "요양원 할머니와 오늘 함께하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할머니가 몸이 불편한데도 게임을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팀이 이긴 것 같다. 내년에도 꼭 다시와서 할머니랑 한 가족이

되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송옥임 어르신(78)은 "오늘 어린이가 호감해야 하는 하는데, 내가 호감아니"하며 기쁜 마음을 내비쳤다.

이와함께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는 5월 15일까지 지역봉사자와 군부대 등이 참여해 어르신들 돌보는 사회봉사 릴레이를 진행했다. 정혜속 기자

# 줍주리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 JTS-길벗 5월 5일 거리모금

어린이날을 맞아 줍주리는 지구촌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행사가 열렸다. 한국 JTS와 방송·연예·문화예술인들의 수행 봉사 모임 길벗이 5월 5일 명동 외환은행앞 특설무대에서 거리모금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방송인 김병조 씨와 아들 김형주(뮤지컬 배우)의 진행을 시작으로 배우 한지민, 배우 박지민, 윤소이, 임세미, 이재우, 아이돌 가수 헬로우비너스 등의 연예인을 비롯한 170여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길벗거리모금은 단돈 천원이 없어도 기금을 거는 제 3세계 국가 어린이들을 위해 '줍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라는 구호를 걸고 매년 2회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를 즈음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배우 박지민 등은 매년 이 행사를 위해 1년 전 스케줄을 미리 빼놓을



JTS 길벗 거리모금에 참여한 배우 박지민 씨. 매년 이 행사에 참여 제 3세계 국가 어린이들의 현실을 알려나가고 있다.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하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거리모금은 봉사자들 전원이 모금통을 들고 나가 시민들에게 제 3세계 국가 어린이들의 현실을 알리며 모금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거리모금에는 170여 자원봉사자들이 1시간 30여분 만에 12,827,170원을 모았다.

JTS는 이 모연금을 인도와 필리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은 물론,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개발사업, 북한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JTS는 어린이날을 맞아 5월 한달 동안 전국 정토회 법당을 중심으로 거리모금을 펼치고 있다. 정혜속 기자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 88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시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식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5년 5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5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개강일시 : 2015년 5월 中 (매주 월) ◀

-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청진)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어렵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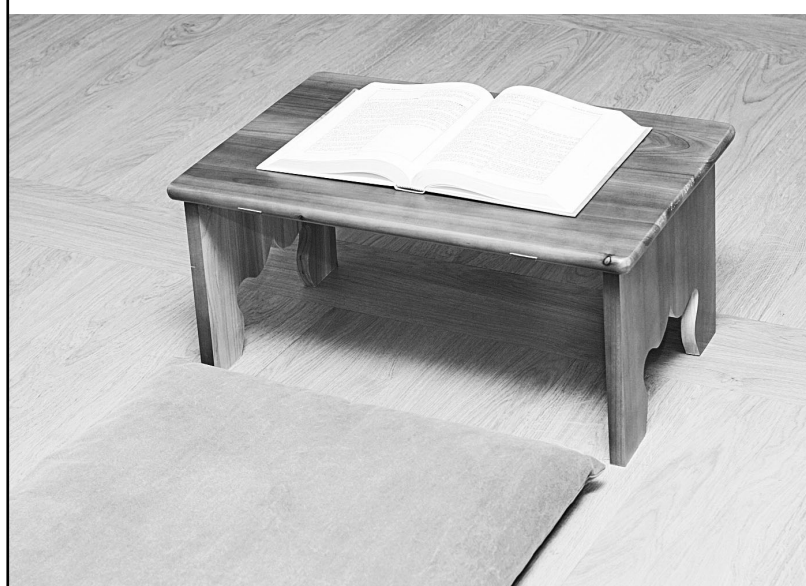


##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 경상(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질 : 편백나무
- 크기 : W60cm × D40cm × H28cm
- 특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격 : 개당 6만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삼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편백나무 경상



▶접은 상태



▶접이식 고급 경첩